

# CEO Information

2006.1.11 (제535호)

## 2006년 해외 10대 트렌드

### 목차

1. 도전받는 미국의 해계모니
2. 태동하는 아시아 回廊
3. 세계 빈곤문제 해결 노력 강화
4. 달러화 약세와 외환시장 불안
5. 디플레 시대에서 인플레이 시대로 전환
6. 대체에너지 산업의 본격화
7. R&D 세계화와 인재 쟁탈전 가속
8. 개도국 기업의 약진
9. 웹(Web) 2차 혁명
10. 도요타의 부상과 미 전통기업의 쇠퇴

작성 : 오승구 수석연구원(3780-8031)  
ooskk@seri.org  
박변순, 복득규, 김종년 수석 외  
감수 : 유석진 수석연구원(3780-8196)  
sjy@seri.org

## 《 요 약 》

2006년 세계경제는 미국 경기가 약간 둔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일본과 유럽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아시아 경제권이 높은 성장세를 달성해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북아-중국-동남아-인도를 연결하는 '**아시아 회랑(Asian Corridor)**'이 **태동**'하면서 역내 교역 및 투자가 활발해지고 새로운 성장 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2006년에도 高유가와 미국의 쌍둥이 적자 심화는 고질적인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될 것이다. 우선 고유가의 고착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장기간 저금리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던 유럽과 일본 등의 중앙은행들이 금리인상 정책으로 선회하고,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온 미국도 상반기 중까지는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계경제는 지난 몇 년간의 '**디플레 시대에서 인플레이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 심화는 '**달러화 약세**'의 원인이 되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대한 통화절상 압력이 강화되면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된다. 중국 등 강대국의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도 정치적 불안정성을 높여서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한 반발과 반미 감정이 확산되는 가운데,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 등 미·중 양국간의 정치·경제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글로벌 기업간의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기업 판도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회랑의 성장 속에 인도·중국 등 '**개도국 기업들이 약진**'하여 글로벌 플레이어로 등장하고, 선진국 기업들과 경쟁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인재 쟁탈전이 가속**'되면서, '**R&D의 세계화**' 추세가 더욱 진전될 것이다. 또한 '**웹(Web)의 2차 혁명**'이 가시화되면서 인터넷 중심의 산업재편이 이뤄지고 업체간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2006년에는 도요타 자동차가 생산대수에서도 GM을 추월하여 명실상부한 자동차 업계 1위에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 '**도요타의 부상**'은 산업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서, 양산조립업 분야에서 '**미국의 전통적 강자들이 점차 쇠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해 왔던 과거와는 달리, 세계화의 부작용, 특히 '**세계적인 소득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의 실질적인 지원 활동이 본격화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유가로 인해 오일 샌드, 수소·연료 전지, 바이오 매스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다.

## 《 2005년 회고 》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 성장을 이룬 한 해

□ 2005년 세계경제는 고유가, 자연재해, 국제정세 불안 가중 등 불안요인이 많았던 한 해

- 국제유가가 한때 70달러/배럴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치를 몇 차례 경신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촉발
  - 미국은 물가상승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 6월 이후 13회에 걸쳐 금리를 인상(1.0%→4.25%)
  - 고유가는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을 촉발함과 동시에 미·중간의 갈등을 초래
- 기상재해, 강진 등으로 세계경제는 막대한 손실을 입음
  - 인도 및 파키스탄 강진, 카트리나, 리타 등의 천재지변이 속출
- 이라크 사태 악화, 이란의 핵문제 등으로 미국과 EU간의 협력체제에 균열 야기
  - 반면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되고 미·일간의 밀월관계는 더욱 공고화

□ 2005년 세계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

- 미국경기는 잠재성장률(3.2%)을 약간 상회하는 성장률을 유지하며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
  - 일본과 유럽은 장기간의 구조조정 노력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침체국면에서 탈출
- 산유국들은 고유가에 힘입은 막대한 오일머니 유입으로 고성장세를 실현하고 동시에 국제금융시장의 주역으로 재등장

□ 다자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역통합 및 자유무역 협정(FTA) 움직임이 본격화

- WTO 각료 회의(12월 홍콩회의)에서 DDA 협상에 실패
- 25개국이 참가하는 거대 EU가 본격 출범하여 경제적 통합을 실현
  -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EU헌법 비준이 부결되어 정치 통합은 지연

□ 본 연구소가 제시했던 '2005년 해외 10대 트렌드'는 대부분 실제상황과 일치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그 정도나 전개 양상에 차이

- 달러화 약세를 예측했으나 2005년 하반기 이후 달러화는 상대적 강세로 전환되었고, 연금개혁이 급진전될 것이란 예측도 어긋남

#### 2005년 해외트렌드 예측과 실제 상황

	예측된 트렌드	2004년 실제상황	
국제 질서 및 경제	세계경제 성장 감속	세계경제 하향 안정	○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 노력	미국에 대한 반발이 확산	△
	달러화 약세, 금리상승	달러화 변동성 심화, 금리상승	△
	BRICs 영향력 증대	중국·인도의 영향력 강화	○
	고원자재 가격과 자원 확보 경쟁	고유가 및 원자재 확보 전쟁	○
	직접투자 회복	개도국의 해외직접투자 확대	△
	부동산 버블 해소	극단적인 붕괴없이 소폭 하락	△
생활	IT 생활 혁명 고령화와 연금개혁	IT 기술 발전 및 생활 침투 지속 고령화 가속세, 연금개혁 지연	○ ×
자연	재해대응과 환경 경영	자연재해 대응책 미비	△

주: ○ 전망과 실제 일치, △는 트렌드는 일치했으나, 정도에 차이, ×는 불일치

## 《 2006년 해외 트렌드 》

□ 2006년 세계경제는 2005년보다 성장세가 약간 둔화될 전망

- 미국경기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일본과 유럽의 경기는 회복세
- 동북아-중국-동남아-인도를 잇는 아시아 회랑(Asian Corridor)이 태동하면서 새로운 성장 지역으로 부각
- 특히 인도경제가 부상하면서 아시아 경제권의 역동적 성장세 지속

□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환율변동 등 외환시장 불안정성, 미국 중심 세계 질서에 대한 도전 등이 세계경제의 불안요인

- 고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그 동안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점차 소멸하고 물가상승 압력이 증가
- 고유가 고착에 따라 대체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본격화
-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은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을 추진
- 미국의 금리인상이 상반기까지 계속되고, EU와 일본도 금리인상 단행
- 쌍둥이 적자 문제 등으로 달러화 약세가 불가피
- 미국이 중국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의 평가절상 압력을 강화하여 외환시장 불안이 확산
-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한 반발과 반미 감정이 확산되는 가운데,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 등 미·중간의 정치·경제적 갈등이 발생

□ 한편 세계화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선·후진국간의 협력이 가시화

- UN, WTO 등 국제기구뿐 아니라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최빈국의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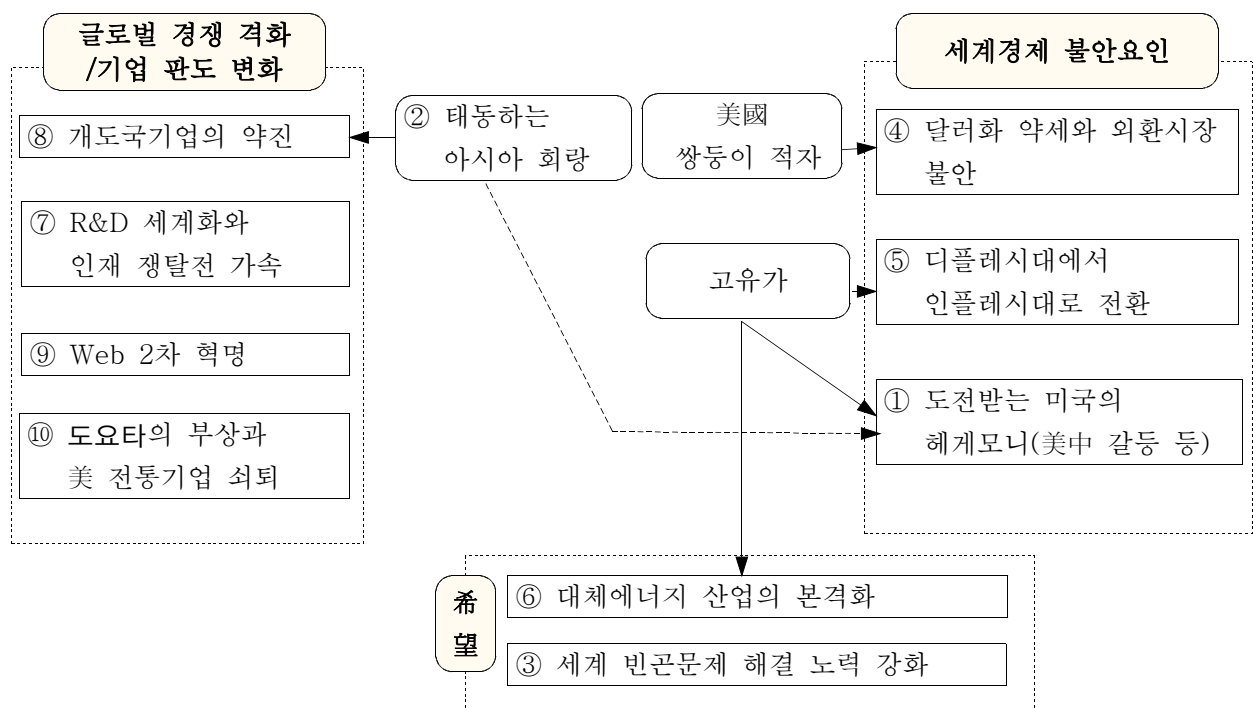
□ 글로벌 기업간의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기업 판도가 변화

- 인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 기업들이 M&A 등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 글로벌 플레이어로 부상
-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의 결과 R&D 기능의 국제화 추세가 더욱 진전
  - 엔지니어를 많이 배출하는 인도·중국이 글로벌 R&D 거점으로 각광
- 도요타가 GM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자동차 업계 1위로 등극
  - 세계 産業史에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서 양산조립산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조락을 상징

□ IT 분야에서도 Web의 2차 혁명이라고 불리는 획기적인 도약이 전개

- IT, 인터넷, 통신, 미디어 등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새로운 융합서비스가 창출되고 주도권 경쟁이 가열

2006년 해외 경제 트렌드



주: 번호는 10대 트렌드를 의미

## 1. 도전받는 미국의 헤게모니

### 세계경제의 다극화 진전

-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점차 약화되는 추세
  - 쌍둥이 적자 확대 등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달러화 리사이클링'에 의한 금융체제의 안정성이 위협
  - 과거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미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로 다시 미국자산을 매입하는 '달러화 리사이클링'이 쌍둥이 적자를 보전
  - 경쟁력 확보를 위해 권역별 블록화 경향이 심화
  - 주요국은 충분한 시장, 저렴한 노동력, 안정적인 자원기반 확보를 위해 지역통합을 추진
-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한 반발과 반미 감정이 확산
  - 巨大 EU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대서양 兩岸 갈등이 발생
  - 이란 핵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은 강경책을, 유럽은 이란의 핵이용권 보장과 경제협력 등 유인책을 제시
  - 중국, 러시아, 인도 등 準 슈퍼 파워가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하며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경제적 제휴를 모색
  - 중동과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미국의 역내 영향력 행사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
  - 미국은 이라크 이후 시리아 등으로 중동 지역에 대한 민주화 압력을 강화할 것이며, 이에 따른 중동 각국의 반발이 예상

## 중국의 부상과 중·미 경제 패권 경쟁 태동

□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中美간 마찰이 발생

- 미국은 중국을 세계 경영의 파트너로 삼는다는 입장에서 탈피하여 잠재적인 경쟁 상대로 보는 시각으로 전환
- 중국과의 장기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높음
  - 중앙 아시아에서의 미군 주둔 확대, 미일 동맹 강화, 인도 및 동남아 국가와의 군사 협력 강화 등
- 2006년에도 위안화 절상 압력, 통상 마찰 등 중국 견제가 예상됨
  - 미 의회는 위안화 절상 압력책으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 27.5%를 부과하는 법안(Graham-Schumer Tariff Bill)을 상정

□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여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

- 미국 독주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구
  - 중국은 2006년을 '러시아의 해'로 선포
- ASEAN과의 경제협력 강화와 동아시아 정상회의(ESA) 주도, 상하이 협력기구 활성화 등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
- 석유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중국으로서는 원유공급 라인의 안정적 확보에 국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중국은 중동뿐 아니라, 러시아, 아프리카, 동남아 등지의 산유국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

## 2. 태동하는 아시아 회랑(回廊)

### 'Chindia'의 부상과 아시아 회랑(Asian Corridor)의 태동

□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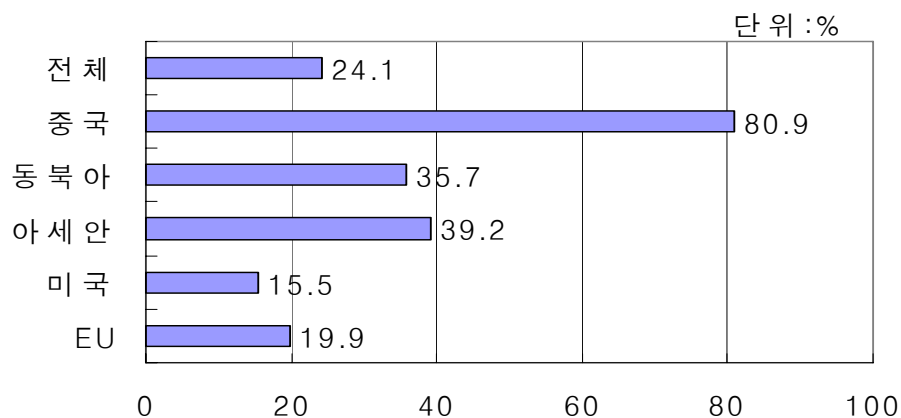
- 양국은 2006년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하여 세계경제에 영향력을 확대
- 2001~2005년 동안 중국과 인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각각 8.9% 및 7.7%로 BRICs를 벗어나 'Chindia'로 차별화

- 중국의 공산품 및 인도의 IT수출이 선진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초래

□ 인도의 부상으로 아시아 경제협력이 東아시아에서 西南아시아까지 확대되면서 아시아 회랑 태동

- 기존 동아시아 협력체제 속에 인도가 편입되면서 동북아-중국-동남아-인도로 이어지는 아시아 회랑이 역동적 성장지대로 부상
- 역내 통합이 심화되어 교역 및 투자가 증가하고 산업분업도 촉진

2004년 인도의 시장별 상품수출 증가율



주: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 1일~익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자료: 인도 상무부

## 국가 및 기업의 아시아 回廊에 대한 대응 활발

□ 역내국가들의 적극적인 FTA 추진이 아시아 회랑의 성장을 촉진

- 중국-아세안 FTA(2005년 7월 상품분야 발효), 한국-아세안, 일본-아세안, 인도-아세안 FTA는 기본협정 체결상태에서 협상이 진행 중
- 인도는 한국, 일본, 중국 등과 FTA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 일본 및 중국은 인도와의 정치적 관계개선도 도모

### 아세안을 둘러싼 아시아의 FTA 추진 현황(2006년 1월 현재)

	현재 상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협정 서명(2002.11)</li> <li>- 상품부문관세인하 시작(2005.7)</li> </ul>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협정 서명(2005.12)</li> <li>- FTA 협상 중</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협정 서명(2003.10)</li> <li>- FTA 협상 중</li> </ul>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협정 서명(2003.10)</li> <li>- FTA 협상 중(2007.1 발효 예정)</li> </ul>

자료: 아세안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정리

□ 다국적기업들은 아시아 회랑 전역을 대상으로 거점의 재배치 검토

- 기존의 중국 중시에서 인도 및 베트남 등에 대한 관심도 확대
- 매년 급증하던 대중국 FDI는 2005년 11월말 현재 전년대비 1.9% 감소
-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리스크 완화를 위해 인도 및 동남아를 활용
- 인도의 소비시장과 IT 기술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현지 투자 확대
- 철강분야의 포스코와 미탈 스틸이 10년에 걸쳐 각 100억 달러 투자
-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인텔도 각각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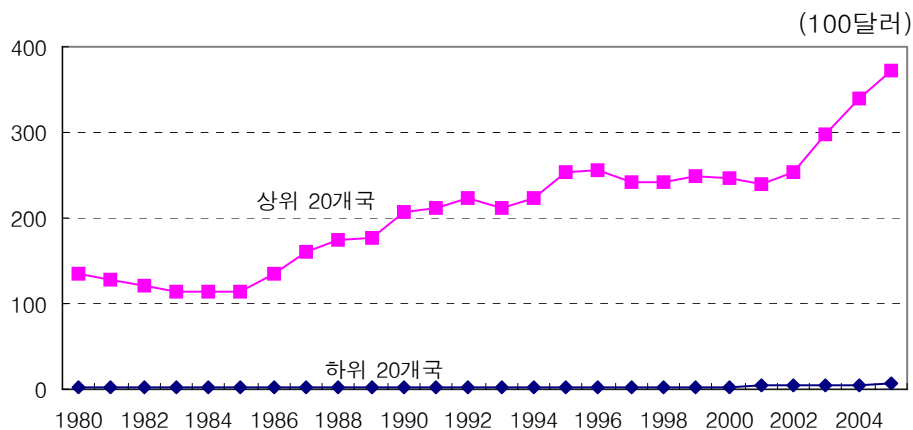
### 3. 세계 빈곤문제 해결 노력 강화

#### 세계경제의 성장 속에 국가 간 소득 불균형 심화

□ 세계경제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최빈국들의 빈곤은 심화

-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남부아시아에 위치한 최빈국들은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질병, 인종갈등, 자연재해, 높은 문맹률, 취약한 인프라, 정치적 불안 등이 경제성장의 애로 요인
- 상위 20개국과 하위 20개국의 소득격차가 1980년 66배에서 2005년에 178배로 확대

세계 소득 격차(1980~2005)



주: 1980~2005년의 상·하위 20개국 평균 1인당 GDP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5년은 추정치)

####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본격화

□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 UN의 선·후진국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
  - 범세계적인 빈곤 타파를 위해 설정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sup>1)</sup>의 국가별 실행목표가 2005년에 구체화
    - 2015년을 목표로 실행에 들어갈 예정
- WTO는 최빈국 지원 강화에 합의하는 등 빈곤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
  - 2005년 12월 제6차 홍콩각료회의에서 특별품목(SP), 특별긴급수입제한(SSM), 개도국 수출보조, 수출·수입 관세 및 쿼터 부분에서 최빈국 및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한 각료선언문 채택
  - 다자간 협상에 대한 개도국·최빈국의 협력을 확보하는 것도 목적

□ 미국, 일본, EU 등도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추세

- 중동과 남미 등에서의 반서구화 목소리를 약화시키기 위해 개발원조 등을 확대
  - 1990년대에는 냉전 해소 등으로 전략적 원조가 축소되었으나, 최근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으로 주변국들에 대한 지원 강화
  - 미국은 2006년까지 50억 달러의 원조와 AIDS 퇴치비용 20억 달러 제공을, EU는 ODA/GNI 비율을 0.38% 확대하기로 약속
- 다른 한편으로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위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

□ 한국도 국제적 위상 제공에 발맞추어 貧國 지원을 확대할 필요

-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제고는 국가이미지 제고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향후 교역 및 투자, 자원확보 등 경제적 이익에도 부합

<sup>1)</sup> 극심한 빈곤과 기아의 근절, 초등 교육 의무화 달성, 성 평등 촉진과 여성 권익 증진, 아동 사망률 감소, 모자보건 향상, HIV/AIDS·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장,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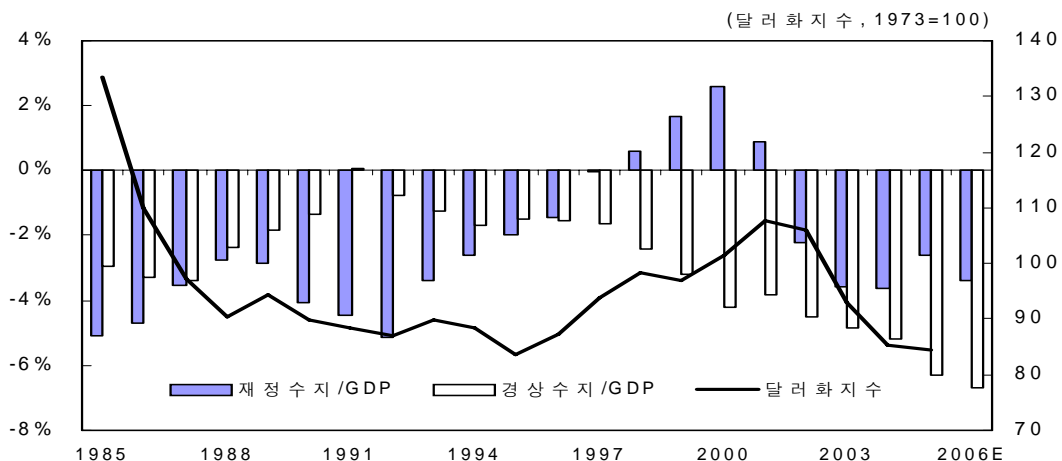
## 4. 달러화 약세와 외환시장 불안

### 달러화 약세 기조의 정착

□ 미국의 금리 인상 중단, 미국 쌍둥이 적자의 채무각 등으로 달러화 약세가 재연

- 그 동안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던 미국의 금리 인상, 상대적 고금리 채로는 소진
- 미국은 상반기 중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는데 반해, 유럽은 금리를 추가로 인상
- 미국의 금리 인상 재료가 소진됨에 따라 쌍둥이 적자가 다시 부각
- 경상수지 적자는 무역구조의 비대칭성(수입>수출), 수입물가 상승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2006년에도 지속<sup>2)</sup>
- 2005년 소폭 개선되었던 재정수지 적자도 2006년 허리케인 복구 비용 등 재정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다시 악화<sup>3)</sup>

미국의 쌍둥이 적자 및 달러화 지수 추이



주: 달러화 지수는 유로지역 11개국, 캐나다, 일본, 영국 등 17개국 통화대비 달러화 가치를 각국의 교역량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지수

자료: 미 의회 예산처, [www.economagic.com](http://www.economagic.com)

<sup>2)</sup> 2006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6%대 후반에 이를 전망

<sup>3)</sup> 2005년 재정수지 개선은 일시적 세수증가(법인세, 자본소득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지속 불가

- 2005년 달러화 강세에 일조했던 미국의 본국 송금 감세법(Homeland Investment Act)<sup>4)</sup>이 2005년에 종료된다는 점도 달러화 약세 요인

## 위안화를 둘러싼 제2의 플라자 합의 논란

□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2의 플라자 합의' 논란이 제기

- 2005년 위안화의 소폭 절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000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미국 무역적자의 25%를 차지
- 미국 정부와 의회는 대중국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시장개방 압력과 함께 위안화 추가 절상 압력을 더욱 강화

□ 중국 정부의 완강한 거부로 '제2의 플라자 합의' 체결보다는 위안화의 소폭 절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 정부는 정치, 경제적 부담 때문에 대폭적인 위안화 평가절상을 포함하는 '제2의 플라자 합의'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
  -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고, 수출 경기 급랭을 야기해 중국 경제를 불안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
- 결국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국내 상황 간의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임
  - 환율 변동폭 확대, 외환제도 선진화 등 외환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5~10%의 추가 절상을 단행

<sup>4)</sup> Homeland Investment Act(2004년 10월 22일 통과)는 해외 진출 미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을 2005년도에 한시적으로 35%에서 5.25%로 인하해 주는 법안

## 5. 디플레 시대에서 인플레 시대로 전환

### 높아지는 물가상승 압력

□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음

- 2000년 이래 IT버블의 붕괴, 중국의 공급 과잉 등으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
- 에너지가격 상승의 영향이 다른 품목으로 과급되면서 점차 근원소비자물가(core inflation)<sup>5)</sup>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
  -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2%대에서 3~4%대로, 유로지역은 2%대 초에서 2% 후반으로 상승

□ 그러나 80년대와 같은 고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은 낮음

- 세계경제의 석유 의존도 하락, 중국의 저가 공산품 공급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제한적
- 비용 상승으로 기업 경영여건은 전반적으로 악화될 전망
  - 高유가, 高원자재 가격에 이어 금리인상 추세가 지속됨으로써 기업 부담은 가중 예상

###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긴축으로 정책기조를 전환

□ 미 聯準은 2006년 중반까지 금리인상 정책을 유지

- 2004년 6월 이후 13회에 걸쳐 금리를 인상(1.0%→4.25%)하였으며, 2006년 상반기까지 Fed Fund 금리를 4.5~4.75%까지 인상할 가능성

<sup>5)</sup> 근원소비자물가는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농산물(곡물 제외)과 국제시장에서의 에너지 가격 변화 등 단기적으로 물가에 충격을 주는 요인을 제거한 뒤 산출한 물가지수

- 공격적인 금리인상은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등이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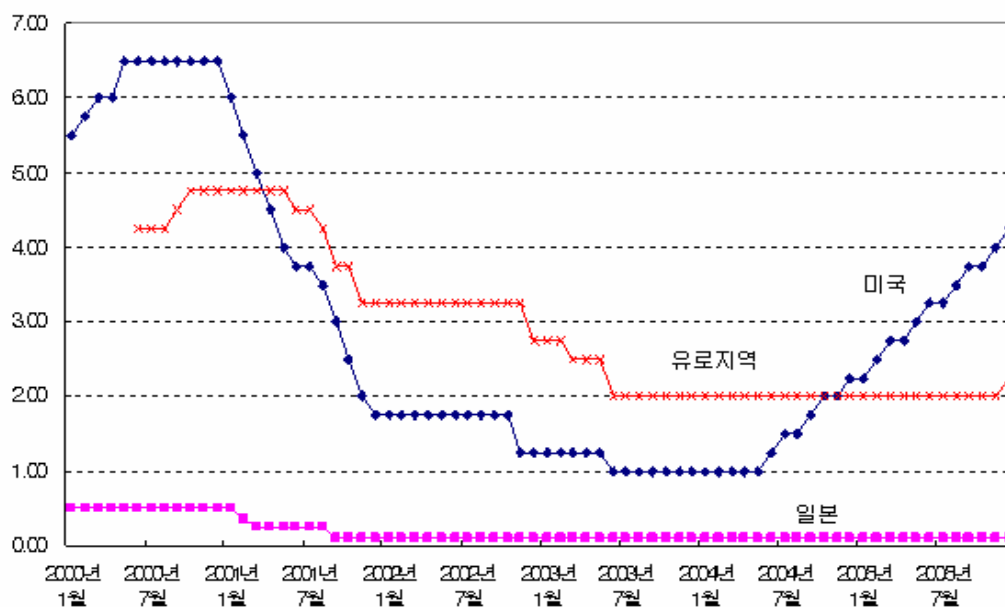
□ 유럽중앙은행(ECB)도 두 차례 정도 추가로 정책금리를 인상할 전망

- 실물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불안을 선제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긴축정책으로 선회
- 2005년 12월 1일에 금리동결 31개월만에 2%에서 2.25%로 인상

□ 일본의 경우도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는 징후가 뚜렷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

- 일본은행(BOJ)은 하반기에 제로금리 정책을 수정하고 양적 통화공급 확대정책 역시 재고할 것으로 예상

주요국 금리 추이



자료: 각국 중앙은행

## 6. 대체에너지 산업의 본격화

### 고유가의 고착과 온실가스 감축대응의 강화

□ 고유가 상황이 고착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

- 2006년 두바이유 가격은 55달러/배럴 전후로 전망되며, 산유국 정정 불안, 기상이변 등 돌발상황 발생시 추가 급등 가능성도 존재
- 원유 공급 확대 능력(capacity)의 제약과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꾸준한 수요증가로 고유가가 지속

□ EU,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대응이 본격화

- 배출권거래, 청정개발체제(CDM)등 온실가스감축 관련시장이 급성장
- 2005년 1월 출범한 EU의 배출권 거래시장(EU-ETS)이 활성화되면서 탄소 관련시장이 급성장<sup>6)</sup>
- 일본도 2006년 1월부터 배출권거래시장을 운영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의 생산설비 및 공정개선이 크게 늘어나면서 ESCO사업<sup>7)</sup>의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 증가

#### 청정기술 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에 돌입한 GE

- ▷ 미국의 대표적 기업인 GE는 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촉구
- ▷ 2005년 5월 GE의 포괄적 성장전략으로 'Ecomagination'을 선포
  - 청정기술 등 환경관련 R&D 투자를 배가('04년 7억\$→'10년 15억\$)
  -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까지 2004년 대비 30% 감축

(Economist(英) 2005.12.8; ge.ecomagination.com)

<sup>6)</sup> EU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탄소거래액은 2005년 50억 유로에서 2010년 230억 유로로 증가

<sup>7)</sup> ESCO(Energy Service Company)란 에너지 사용자를 대신해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한 후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지칭

## 대체에너지 산업의 확대

□ 기술발달과 유가 급등으로 경제성이 높아진 오일샌드<sup>8)</sup>, GTL(Gas To Liquid)등 대체자원 개발이 확산

- 오일샌드가 석유매장량에 포함되면서 캐나다가 사우디에 이어 세계 2위의 석유 매장량 보유국으로 부상
- CO<sub>2</sub> 배출량이 일반 석유의 6배에 달하는 등 환경문제가 걸림돌
- 천연가스의 액화연료 전환기술인 GTL개발 경쟁도 확산
- 수송이 쉽고 효율이 뛰어나 경유를 대체하는 친환경연료로 부상

□ 수소·연료전지, 바이오매스<sup>9)</sup>, 태양광, 풍력 등 지속 가능하고 공해가 없는 新·再生 에너지 개발이 본격화

- 세계 2위의 석유업체인 BP는 2006년부터 10년간 총 80억 달러를 대체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계획
- 2005년에도 전세계에서 재생에너지에 투자된 금액은 300억 달러 규모로 에너지 산업 전체 투자액의 20%를 차지

### 주요 신·재생에너지의 현황 및 전망

종류	현황 및 전망
수 소 · 연 료 전 지	- 2005년 일본이 가정용 연료전지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 - 2010년 연료전지시장은 950억 달러 규모로 급팽창
바 이 오 매 스	- 석유, 천연가스, 석탄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에너지원으로 추정 - EU는 2010년까지 자동차 연료의 5.75%를 바이오연료로 대체
풍 력	- 90년 이후 세계 풍력발전 용량이 연 25%씩 증가 - 유럽이 선도: 풍력 발전 용량의 2/3가 유럽에 집중 - 2010년 시장규모: 340억 달러
태 양 광	- 2010년 시장규모: 300억 달러

자료: 산업자원부 내부 자료 등을 참조하여 삼성경제연구소 작성

<sup>8)</sup> Oil Sand : 모래, 물, 점토 및 초중질유(비투멘)의 혼합물로서 채굴-비투멘 추출(열처리)-정제의 단계를 거쳐 원유를 추출하게 됨. 오일 샌드를 합산하는 경우 캐나다의 석유 매장량은 1,788억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사우디의 매장량은 2,627억 배럴).

<sup>9)</sup> Biomass : 열 분해나 발효에 의해 메탄·에탄올·수소 등의 연료 생산이 가능한 생물 자원.

## 7. R&D 세계화와 인재 쟁탈전 가속

### 확대일로의 R&D 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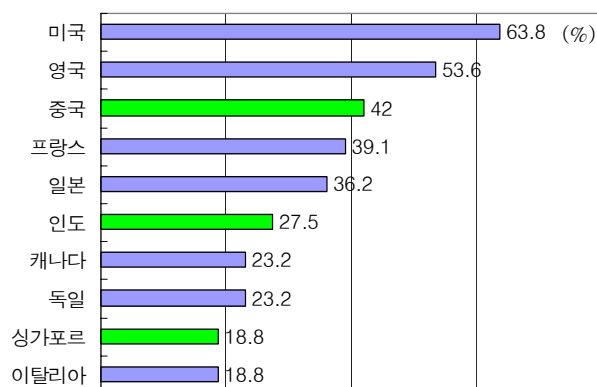
□ 기술의 빠른 발전과 개발 비용·위험의 증가로 인하여 기업의 R&D 활동이 세계 각지로 분산·네트워크화되는 추세

- UNCTAD 조사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평균 6.3개의 해외 R&D 센터를 운영 중<sup>10)</sup>
  - 전체 R&D예산의 28%(2003년)를 해외에서 사용
- 해외 R&D 센터의 확장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
  - 글로벌 기업의 67.2%가 해외 R&D센터 확장 계획을 보유<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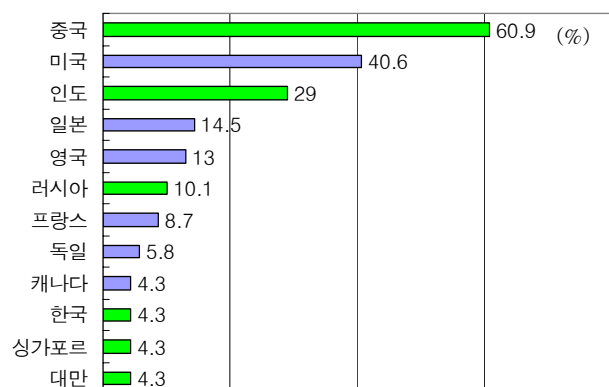
□ 중국과 인도가 글로벌 기업의 해외 R&D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

-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R&D 거점을 설치할 희망하는 국가 순위에서 중국이 1위, 인도가 3위를 차지
  - 2004년 말 기준 글로벌 기업의 중국 연구개발센터 수는 약 690개<sup>12)</sup>

글로벌 기업의 해외 R&D거점



향후 희망 해외 R&D거점



주: 응답 기업 중의 비율을 표시

자료: UNCTAD, "UNCTAD Survey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R&D," 2005.

<sup>10)</sup> R&D 투자액 기준 상위 300대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서, 응답회사 수는 69개사(UNCTAD, "UNCTAD Survey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R&D," 2005.)

<sup>11)</sup> 上掲書

<sup>12)</sup> 산업연구원, "중국의 세계 R&D 거점화에 대비해야," 산업경제정보 제258호, 2005.5.19.

## 글로벌 인재 전쟁이 R&D 세계화의 배경

□ R&D 세계화의 배후에는 세계적인 인재 쟁탈전이 있음

- 기술이 고도화되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자국 내에 한정된 인재 Pool만으로는 성공적 기술 개발에 한계
  - "글로벌 기업들이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재들이 필요한 데, 이를 한 국가 내에서만 찾을 수는 없기 때문"<sup>13)</sup>
-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 인재의 자국 내 유치와 해외현지 채용을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
  - 높은 보수와 첨단연구환경은 물론 생활여건과 골드비자 등을 제시

### 글로벌 인재와 기술을 모으는 싱가포르

- ▷ 싱가포르 과학청은 해외 인재유치를 통한 바이오 허브 구축전략을 구사
  - 세계 최초로 복제양 '돌리'를 만든 영국의 앨런 콜먼 박사, 기적의 항암제 글리벡을 만든 알렉스 마터 박사 등을 싱가포르로 유치
- ▷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유치·연계시켜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집적이 집적을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 중국, 인도가 글로벌 R&D 기지로 각광받는 배경에는 양질의 풍부한 이공계 인재가 존재

- 자질이 우수한 인재들을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활용 가능
  - 2004년 미국 공대졸업생이 6만 명인 것에 비해 중국과 인도의 공대 졸업생은 5배나 많은 30만 명에 달함<sup>14)</sup>
  - 인도 방갈로지역에는 약 14만 명의 IT전문가가 일하고 있는데, 이는 실리콘밸리보다 2만 명이나 많은 수치<sup>15)</sup>

<sup>13)</sup> 포레스터 리서치의 CEO 조지 콜로니(George Colony), *Fortune*, 2005.7.25.

<sup>14)</sup> Levin Institute Conference, *The Evolving Global Talent Pool: Issues, Challenges, and Strategic Implication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2005.

<sup>15)</sup> *Economist*, 2004.4.1.

## 8. 개도국 기업의 약진

###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하는 개도국 기업

□ 최근 중국, 인도 기업들의 글로벌 위상이 크게 향상

- 포천 글로벌 500 순위에 지난 2000년 이후 인도(1개→5개)와 중국기업(12개→16개)의 수가 현저히 증가
  - 네덜란드(9개→14개)를 제외하고는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

□ 이들 기업은 M&A를 통해 적극적인 글로벌 확장을 본격화

- 중국은 '해외로 나가자'는 '저우추취(走出去)'의 기치 하에서 전 산업에 걸쳐 해외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등 공격적 확장에 박차
  - 위안화 절상이 현실화될 경우 해외기업 인수가격이 하락하게 됨에 따라 해외 M&A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
- 인도기업도 IT,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사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유럽 등의 우수기업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 중
  - 타타그룹은 2004년 대우상용차와 싱가포르의 최대 철강업체 넷스틸을 인수한데 이어 2005년 12월에는 영국 화학업체 브러너몬드 인수
- 에너지 부문에서는 중국, 인도 기업 간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
  - 2005년 8월 페트로카자흐스탄 인수에 이어 나이지리아 유정(油井) 인수에서도 금년 1월초까지 양국 기업이 경합<sup>16)</sup>

□ 저가 이미지를 탈피하고 글로벌 브랜드로 재탄생하기 위해 디자인, 기술력, 핵심인재를 비롯한 비가격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

- 중국은 연간 1만 명의 산업디자인 전문가를 배출하며 디자인 역량을 강화

<sup>16)</sup> 페트로카자흐스탄의 경우 중국의 CNPC가 인수하였으며, 인도의 ONCP와 중국의 CNOOC가 경합을 벌인 나이지리아 유정도 중국 측의 인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자국의 우수인력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핵심 인재 확보에 총력을 경주
- 인도의 경우 영어와 IT기술로 무장한 소위 '지피족(zippies)<sup>17)</sup>'들이 인도 기업들의 글로벌 핵심자산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

#### 10년 후 후발국 기업이 세계를 휩쓴다

맥킨지 파트너인 시리시 산케(Shirish Sankhe)는 10~15년 후에는 시가총액 세계 100대 기업의 절반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SAB밀러, 멕시코의 세멕스(Cemex), 인도의 인포시스(Infosys) 등의 개도국 기업이 차지할 것이라 주장

### 선진기업들의 반격도 가시화

□ 선진기업들은 합종연횡을 통해 급부상하는 개도국 기업에 대응하거나 정부압력을 통해 이들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를 견제

- 인텔은 2005년 12월 삼성전자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마이크론과 낸드플래시 합작 협정을 체결했으며 히타치, NEC, 르네사스 등 일본의 5개사는 시스템 LSI 공동 투자안을 발표하는 등 연합전선을 구축
- 중국의 석유업체 CNOOC는 미국의 유노컬 인수에 적극적이었지만 미국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실패
- 세계 3위의 반도체 파운드리업체인 중국의 SMIC 역시 경쟁사인 마이크론의 방해로 미국으로부터의 첨단장비 수입이 거부된 상태

□ 기술기밀주의가 대두되는 가운데 비교우위에 있는 첨단기술 개발에 주력

- 개도국 기업의 기술력이 위협적인 수준에 이르면서 선진기업은 핵심 기술유출 방지에 적극적
- 캐논은 최근 기술중시에 대한 의지를 사·내외에 천명하고 '기술정보 서비스요원'을 배치하여 특허침해와 기술유출에 적극 대처

<sup>17)</sup> 미국의 컬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만이 2004년 *뉴욕타임즈* 칼럼 "Meet the Zippies"에서 처음 소개한 용어로 "정보통신기술, 영어에 능한 인도의 젊은 세대(보통 15세~25세)"를 뜻함. 인도 전통 복장이 아니라 지퍼가 달린 서구식 바지를 입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함.

## 9. 웹(Web) 2차 혁명

### 변화의 2막 : "모든 길은 인터넷으로 통한다"

□ 초고속 인터넷 확산, 인터넷 기업의 재도약, 웹서비스 진화 등을 통해 인터넷이 제2의 변혁기를 맞고 있음

- 2005년 구글 등이 촉발시킨 신서비스, 영역 확대 경쟁이 업계 도약의 기폭제로 작용
- 대표적 인터넷 기업들의 실적은 이미 2000년 호황기 수준을 상회
  - 글로벌 5대 인터넷 기업의 시가총액 합: 1,780억 달러('00년) → 320억 달러('02년) → 2,620억 달러('05년)<sup>18)</sup>
- 인터넷이 통신, 미디어, 상거래의 종합적 플랫폼으로 진화되면서 사회 시스템적 변화를 수반
  - 소수 닷컴 업체가 주도하던 웹 1차 확산기와 달리 웹 2차 혁명기에는 일반인의 역동적 참여가 인터넷 진화의 근간이 됨

#### 웹 2차 혁명의 양상

	웹 1차 확산기(1995년~2005년)	웹 2차 혁명기(2006년~)
특징	검색 중심의 인터넷 포털	인터넷, 통신, 영상, 웹 기반 S/W를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
주요 서비스	검색, 쇼핑몰, 온라인 경매 등	인터넷 TV, 웹 기반의 SW, 원격 교육, 원격 의료 등까지 확대
변화의 원동력	기술, 소수의 인터넷 기업 중심 (공급자 중심의 콘텐츠 생성)	블로그, 위키피디아 등 개인 참여와 집단적 상호작용이 핵심
주요기술	HTML, ActiveX 등	AJAX, RSS, Tagging 등
파급효과	인터넷 산업 내 변화 중심	사회 시스템적 변화를 수반

<sup>18)</sup> 구글, 야후, 이베이, 야후 재팬, 아마존의 5대 기업. 기업 가치는 각각 2000년 3월 10일, 2002년 10월 9일, 2005년 11월 11일 기준(Morgan Stanley, "Global Technology/Internet Trends", 2005.11.15)

## 인터넷 중심의 산업 재편 가속화

### □ 산업별 온라인 전환이 확대되고 업체간 주도권 경쟁도 심화

- 미디어, 상거래, 금융, 통신 등 업종별 온라인 전환이 지속
  - 인터넷TV(IPTV)의 경우, 2006년에 괄목할 진전이 예상되며 유럽지역의 성장이 두드러질 전망<sup>19)</sup>
  - 2008년 미국의 온라인 구매 이용자는 9,880만, 온라인 बैं킹 이용가구도 4,600만에 달할 전망<sup>20)</sup>
- 인터넷, 통신, 미디어 업체 등이 차세대 인터넷 주도권 확보를 위해 동시 경쟁

### □ 지역별로 인터넷 발전 패턴이 다원화되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의 인터넷 파워가 상승

- 2006년 아·태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 가구는 1억을 넘어서 북미(5,770만), 서유럽(5,790만)의 2배에 달할 전망
- "향후 10년의 혁신은 아시아 등 미국 외에서 나올 것" (모건 스탠리)

#### 2006년 지역별 인터넷 동향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인터넷 업체(구글, 야후, MS, 이베이)들의 종합 미디어화 확대</li> <li>- Verizon, SBC 등 주요 통신업체들의 QPS<sup>주)</sup> 경쟁 심화</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 인터넷 벤처 중심으로 인터넷 방송 서비스 급진전</li> <li>· 대표적 업체 : Index Incorp., Usen, Softbank, Oricon 등</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통신의 빠른 보급 확대로 무선 인터넷 본격화</li> <li>· 휴대폰 이용자가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3.6배(미국 0.8배, 영국 1.5배)</li> </ul>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별로 인터넷 전화 도입 확대</li> <li>· 덴마크에서는 인터넷 전화 통화시간이 유선 전화 통화시간을 상회</li> <li>- British Telecom, Swisscom, Deutsche Telekom 등 인터넷 TV 개시</li> </ul>

주: QPS(Quadruple Play Service) : 초고속인터넷+ 전화+ 방송+ 이동통신

자료: Morgan Stanley, "Global Technology/Internet Trends", 2005.11.15

<sup>19)</sup> 2006년 지역별 가입자수는 유럽 350만, 북미 235만, 아시아 222만으로 전망됨(Robert W. Baird & Co., "Investing for the IPTV Shakeout", 2005.10.18)

<sup>20)</sup> eMarketer, "Broadband: Demographic and Usage Trends", 2005.6

## 10. 도요타의 부상과 미 전통기업의 쇠퇴

### 명암이 엇갈리는 GM과 도요타

□ 한때 미국을 대표하던 GM이 최근 파산설까지 나올 정도로 경영 위기에 봉착하며 美 전통제조기업 쇠락의 전조라는 의견이 제기

- GM은 2004년에 매출 1,935억 달러, 순이익 28억 달러였으나 2005년(9월까지)에는 매출 1,415억 달러, 순손실 38억 달러로 경영 악화
  - 흑자를 보고 있는 자동차 할부금융(GMAC)을 제외한 자동차 부문은 2004년 9천만 달러, 2005년(9월까지) 60억 달러의 적자
- 이를 반영하여 스탠더드 앤 푸어社は 2005년 12월 이미 투기등급이던 GM의 신용등급을 2단계 더 낮은 'B'로 조정
  - 파산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평가

□ 반면 도요타는 생산량 기준 세계 자동차 메이커 1위의 자리를 당초 예상보다 빠른 2006년에 달성할 전망

- 도요타는 2006년 자동차 생산량을 920만 대로 계획하고 있는 반면, GM은 잘해도 2005년 생산량인 912만 대를 넘지 못할 전망
  - 도요타는 시가 총액이나 이익 면에서는 이미 GM을 능가

### GM과 도요타의 실적 비교

(10억 달러)

	GM		도요타	
	2004	2005(9개월)	2004	2005.반기
매출	193.5	141.5(-0.4%)	163.6	87.6(6.6%)
순이익	2.8	△3.8(적자전환)	11.4	5.3(2.3%)
시가총액	10.7		173.8	

주: 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시가총액은 2006년 1월 3일 기준  
자료: Hoovers.com

- 도요타의 부상은 꾸준하면서도 철저한 '카이젠(改善)'과 변화의 일상화, 노사관계 안정 등의 결과
  - 미래형 자동차의 개발에 힘써온 도요타는 電裝부품, 하이브리드카와 연료전지차 등에 대한 R&D에 일찌감치 주력
  - 도요타 노조는 4년 연속 기본급 동결을 결의하고 회사는 파격적인 성과급 지급으로 업계 최고 대우를 유지

### 양산조립업의 기업판도 변화

- GM의 쇠락과 도요타의 업계 1위 등극은 양산조립업 분야의 국제적인 기업판도 변화를 시사
  -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은 것"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미국의 제조업을 상징하던 거대 기업이 후발업체에게 추격 당함
  - 1987년 GE의 RCA TV사업부문 매각에 버금가는 사건
  - 자동차 100년 왕국의 영화를 누려 오던 GM이나 포드의 위기는 양산조립산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의미
  - 자동차는 양산조립업 분야에서 미국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던 몇 안 되는 산업
- 전통 제조기업들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IT, BT 등 신경제 분야의 급성장으로 미국경제는 호황을 유지
  - 신경제 내에서도 구글, 애플 등 혁신에 성공한 기업이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창조
  -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미국 기업은 2002년 192개에서 2004년 176개로 감소했으나, IT기업은 26개에서 29개로 증가

##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lt; 금융동향 &gt;

	1. 3.	1. 4.	1. 5.	1. 6.	1. 9.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1,005.4	998.5	987.3	998.1	977.5
엔/달러(뉴욕시장)	117.81	116.27	116.27	116.05	114.51
금리 회사채(3년AA-, %)	5.57	5.51	5.57	5.56	5.53
국고채(3년, %)	5.12	5.06	5.12	5.10	5.06
주가지수(KOSPI, 종가)	1,394.87	1,402.11	1,395.51	1,412.78	1,408.33

## &lt; 실물동향 &gt;

(전년동기(월)비, %)

	2003년	2004년	2005.8월	9월	10월	11월	12월
GDP성장률	3.1	4.6	4.5	..	..	..	..
민간소비	-1.2	-0.5	4.0	..	..	..	..
설비투자	-1.2	3.8	4.2	..	..	..	..
산업생산	5.0	10.4	6.4	7.3	8.2	12.2	..
평균가동률	78.3	80.3	78.6	79.0	79.3	83.3	..
실업률	3.6	3.7	3.6	3.6	3.6	3.3	..
실업자(만명)	81.8	86.0	84.3	87.0	87.0	78.5	..
전국 어음부도율	0.08	0.06	0.03	0.03	0.06	0.03	..
소비자물가상승률	3.6	3.6	2.0	2.7	2.5	2.4	2.6
수출(억달러)	1,938.2	2,538.5	2,334.7	2,452.7	2,536.8	2,589.4	2,579.5
(증감률)	(19.3)	(31.0)	(17.9)	(17.7)	(11.9)	(12.2)	(11.2)
수입(억달러)	1,788.3	2,244.6	2,195.4	2,267.0	2,271.6	2,392.9	2,422.8
(증감률)	(17.6)	(25.5)	(21.1)	(24.6)	(11.3)	(17.8)	(15.6)
경상수지(억달러)	119.5	276.1	-5.0	16.4	29.9	20.5	..
외환보유액(억달러)	1,553.5	1,990.7	2,067.1	2,067.3	2,073.1	2,082.3	..
총대외지불부담 (억달러)	1,589	1,780	1,873	..	..	..	..